

# 중국의 최근 IT 산업정보에 대한 동향 분석 연구

이동철\* · 송종호 · 김기문\*\*

\*해양대학교 정보통신과 박사과정, \*\*해양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 IT Industry Informations in China

\*Dong Chul Lee, Jong Ho Song, \*\*Gi Moon Kim

TTA

E-mail : dong@tta.or.kr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01.12월 중국국무원 의결 36호 전신체제 개혁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을 거쳐 2002.5.16일 중국네트워크통신그룹(中國網通)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신규 중국망통은 북경, 천진, 요녕, 길림 등 북부지역 10개성·시의 통신자산 일체를 중국전신에서 이관 받아 관장하게 되어 두 회사는 상대방 관할 지역에서는 상호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선전화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망통 설립으로 매출액기준 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3.8% 중국네트워크통신: 17.2%; 중국이동통신: 36.6%; 중국연통: 11.3%; 중국위성과 중국철도통신: 1.1%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전신의 분할,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MOU 체결, 차이나텔레콤과 SKT간 합작회사 설립 MOU 체결, 중국 국가 정보화 영도팀 제2차 회의결과 내용, 중국의 VDSL 시장출현 등 중국의 IT 산업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IT전망을 조망하여 본다.

### I. 서 론

중국 IT 산업은 2001. 12월 중국국무원 의결 36호 전신체제 개혁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 2002.5월 중국네트워크통신그룹(中國網通)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신규 중국망통은 북경, 천진, 요녕, 길림 등 북부지역 10개성·시의 통신자산 일체를 중국전신에서 이관 받아 관장하게 되어 두 회사는 상대방 관할 지역에서는 상호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선전화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망통 설립으로 매출액기준 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3.8%, 중국네트워크통신: 17.2%, 중국이동통신: 36.6%, 중국연통: 11.3%, 중국위성과 중국철도통신: 1.1%를 차지하게 되었다. IT분야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2002년 7월 현재 한·중·일 협력회의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중국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아국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고에서는 중국의 IT 산업정보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체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 II. 중국전신(China Telecom)분할

2001. 12월 중국국무원의결 36호전신체제 개혁 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을 거쳐 2002.5.16일 중국네트워크통신그룹(中國網通)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하였다. 신규 중국망통은 북경, 천진, 요녕, 길림 등 북부지역 10개성·시의 통신자산 일체를 중국전신에서 이관 받아 관장하게 되나 두 회사는 상대방 관할 지역에서는 상호 영업할 수 있다. 유선전화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졌다. 중국망통 설립으로 매출액기준 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3.8%, 중국네트워크통신: 17.2%, 중국이동통신: 36.6%, 중국연통: 11.3%, 중국위성과 중국철도통신: 1.1%를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 III. 중국 마이크로소프트회사와 MOU체결

2002. 6.27일 국가계획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회사가 62억 위엔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소프트웨어산업 대외합작을 추진하는 양해 비망록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비망록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지원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회사와 중국국내기업, 과학연구단위, 대학,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 등과 수출, 투자, 인적교육, 기술개발에 대해 62억 위엔에 달하는 합작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일 큰 대외합작규모이다. 이 비망록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향후 3년 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7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중국의 소프트웨어제품과 서비스가 국제시장에 진출하게끔 지원해준다.

(2) 마이크로소프트와 국가계획위는 11개 국가소프트웨어산업기지에서 소프트웨어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과 합작하여 소프트웨어 인적 수출을 앞선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습과 방문을 지원한다.

(3)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국내기업의 합자, 합작을 촉진하고 중국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주며 중국기업의 시장확대도 지원해준다.

(4)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중요한 정보화용역영역과 국가계획 위에서 추천해주는 회사와 합작을 진행하고 일부 소프트웨어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에 실험실을 설립하며 중국 S/W 유관기업에 아시아 연구원의 일부 기술개발성과를 이전하는 동시에 정보안전에 필요한 기술도 지원해 준다.

### IV. 차이나유니콤과 SKT간 합작회사 설립 MOU체결

2002년 7월 3일 중국연통과 SKT간 무선인터넷사업의 중국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합작회사 설립의 목적은 양당사자는 합작회사설립을 통해 중국연통이 추진중인 무선인터넷 사업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이러한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무선인터넷 사업부문에서 관련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공동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가. 합작회사의 사업범위

- (1) 중국연통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Platform의 구축
- (2) Platform의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 (3) 중국연통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연구 개발 협조
- (4) 중국 정부 규제에 준한 Service Contents의 직접 공급 및 ASP, ICP 업체들에 대한 접속 서비스
- (5)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실시
- (6) 중국연통 무선인터넷 서비스 발전 전략 지원

#### 나. 향후 추진계획

2002년 7.10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작규모, 제공 서비스, 플랫폼 부문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 내로 합작회사설립을 완료기로 하였다.

#### 다. 합작회사 설립효과

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를 전담하는 동합작회사가 설립되면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상용서비스를 제공중인 400여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업체의 중국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V. 중국 국가정보화영도팀 제2차 회의 개최

국무원총리 겸 국가정보화팀 팀장인 朱容基총리는 2002년 7월 3일 국가정보화영도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전문기획>>, <<중국의 전자정무건설의 지도의견>>을 통과시켰고 소프트웨어산업발전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총리는 시대의 진보와 세계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해야 하고 중국현대화건설의 국면과 전략에 대해 고려하고 대대적으로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중국의 지적자원의 우세를 발휘하여 S/W산업을 발전시키고 전자정부를 강력히 추진하여 기타 영역의 정보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정보화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보화 기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부처간 정보화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기초를 잘 닦고 중국특색이 있는 정보화의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위원·국가부주석·국가정보화영도팀 부팀장胡錦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위원·국가부총리·국가정보화영도팀의 부팀장李嵐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선전부부장, 국가정보화영도팀부소장丁關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국무원부총리, 국가정보화영도팀부팀장吳邦國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국가발전계획위주임, 국가정보화영도

팀부팀장겸 국무원 정보화공작판공실주임曾培炎이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전문기획, 전자정부건설지도의 견과 S/W산업발전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또한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의 제15기 제5차 전회에서 내놓은 중요한 정책이고 중국의 현대화건설을 보급시키는 중요한 전략조치이고 「三個代表」의 중요사상의 조치라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보화전문기획을 통과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정보화발전기획이다.

### VI. 중국 제1차 IT Expo개최 예정

UN경제사회이사회, 산둥성정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중국 IT-EXPO가 10.18-21 산둥성 제남 시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10.18-21, 산둥성 제남시 국제 전시장

나. 주최 및 후원기관

○ 공동주최기관: UN경제사회이사회, UN아시아 태평양 기술이전센터, 중국공정원, 산둥성정부

○ 후원기관: 과기부, 교육부, 신식산업부

다. 주요행사

○ IT신기술국제전시회:

-네트워, 컴퓨터, S/W, 통신분야 첨단기술 및 제품전시

○ 정부포럼:

-사회경제발전과 정보화

-IT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태평양국가간 IT기술협력 증진

○ 기업포럼

-IT산업의 도전과 기회

-전통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정보화

-교육, 농업, 의료 등 분야에서의 IT기술 적용

○ 기술포럼

-차세대 네트워크기술

-정보단말기 및 정보가전의 신기술

-차세대 정보보안기술

라. 기타

○ 개막식에 중국정부 최고위급 영도자 참석 예정.

### VII. 중국VDSL 내년에 시장출현

현재 중국전신 및 차이나유니콤 등 전신업자들은

VDSL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VDSL을 정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中興, 華爲 및 大唐 등 국내통신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의 점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국내 VDSL을 구매하는 자는 SI회사 및 광대역서비스제공 회사이지만 점차적으로 중국전신, 차이나유니콤 등 통신업자들로 변화할 것이고 2002년에는 ADSL을 위주로 하고 VDSL은 시범단계에 있었지만 올 9월부터 VDSL을 사용할 계획이고 2002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할 예정이다.

업계인사들은 VDSL의 수요는 200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통신업자들은 수요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2003년에 들어서야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실제 수요는 100만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대만의 네트워제작기업 合勤의 總經理 朱順은 VDSL은 속도가 빠르고 전송거리가 짧은 특징이 있고 단지 및 대형의 건축에 적합하며 시장의 수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나 현재 대만 및 일본을 주요한 시장으로 수요가 조금씩 생기나 여전히 시범 및 초기의 건설단계에 있다.

VDSL의 시장 증가 잠재력이 크기에 중국IT제조기업들인 中興, 華爲 및 大唐, 太光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그중 華爲은 국부단 및 고객단의 설비를 장악, 中興은 접속단 설비를 장악, 太光은 후발주자로 분발하고 있다. 대만의 제작상 乙太네트웍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있어 고객단 시설의 원가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中興의 고객단 시설과 大唐의 국부단 및 고객단 시설은 모두 대만지역의 제작상들과 합작하려 하고 있다.

### VIII. 2002.상반기 중국의 통신시장현황

가. 2002.상반기통신서비스매출 및 신규가입자 현황

(1) 통신업무매출액: 2189.4억위엔(전년대비 15.6% 증가)

-郵政서비스 매출은 247.4억위엔(전년대비 8.5% 증가)이고 전기통신서비스 매출은 1942.1억위엔(16.6%증가)임.

-전기통신서비스 매출구조

이동통신: 920.6억위엔(24%)

시내통신: 565억위엔(13.5%)

데이터통신: 84억위엔(6.8%)

→국제통신:36.8억위엔(-17.6%)

→장거리통신: 222억위엔(-0.2%)

기타: 113.7억위엔

합계: 1942.1억위엔(100%)

-郵政儲蓄의 잔고는 6627.1억위엔으로 동기에 비해 24.7% 증가

(2) 신규가입자

상반기 전체 신규가입자는 5126.6만명으로 총 사용자가 3.75억명에 이룸.

-일반유선전화 신규가입자: 1990.9만명(누계 1.99억)

-이동전화 신규가입자: 3135.7만명(누계 1.76억)

-인터넷 접속: 289.5만명(누계 3975.9만)

-100명당 전화보급율:30.2(4.2% 증가)

나. 통신분야 신규투자 및 시설용량

(1) 투자규모

-고정자산투자를 518.3억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5.7% 감소.

그중 신규 통신인프라투자가 154.6억위엔이고 통신시설개조투자가 361.9억위엔이며, 우정분야 투자는 19억위엔

-지역별 투자현황으로 보면 동부지역은 299억 위엔(57.7%), 중부지역은 129억위엔(24.9%), 서부지역은 90억위엔(17.4%)임.

(2) 통신시설용량

-새로 증가한 전화교환시설용량은 1188만회선으로 총용량은 2.1억회선임.

-새로 증가한 이동전화교환시설용량은 4114만 회선으로 총용량은 2.5억회선임.

다. 통신회사별 시장점유율

3월말까지 통신업무매출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2.6%(지난년말51.2%) 중국망통 16.8% 중국이동통신 38.3%(지난년말 38.1%) 중국연통11.2%(지난년말 0.3%) 기타 (中國衛星, 中國鐵通, 吉通)가 1.1%를 차지한다.

○ 이동전화 사용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이동이 70% 중국연통이 30%를 차지.

○ 일반전화 사용자는 중국전신이 62.1%, 중국망통 36.8%, 중국연통, 철통이 1.1%를 차지

○ 장거리 케이블사업은 중국전신에서 66.3%에 중국연통은 23.5%임.

라. 상반기 통신업현황 특징

○ 단기 전화 사용자들의 증가로 사용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수입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음.

○ 인터넷통신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인터넷의 운영과 시장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규제와 인터넷기업의 규범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요금체납현상이 두드러져 전체체납액이 200억위엔을 초과.

○ 농촌의 전화형세가 여전히 열악한 바 전체 신규 가입자 5126.6만명 중 606만 명밖에 증가하지 못했음.

IX. 결론

본 고에서는 중국국무원의 개혁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을 거쳐 2002.5.16일 중국네트워크 통신그룹(中國網通)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된 내용 중 중국 IT 산업정보 동향을 분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IT 동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중국전신 및 차이나 유니콤 등의 VDSL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2003년부터 VDSL를 정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中興, 華爲 및 大唐 등 국내통신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의 점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국내 VDSL을 구매자는 주로 SI 업체 및 광대역서비스 제공회사이지만 점차적으로 중국전신, 차이나유니콤 등 통신업자들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2002년에는 ADSL을 2002년 9월경에는 VDSL을 시범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동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동향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중국 정보산업 연도 보고, 2001.
- [2]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보고서, 2001. 1.
- [3] 중국 이동통신산업의 현황 및 동향, 주 기술동향 968호, 2000. 6. 27.